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마무리

익산시, 새만금 수질개선 · 호남고속도로 광역악취 해소... 호남관문 이미지 개선

익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학호마을 축사매입 매매계약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와 함께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제거되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호남고속도로변 광역악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기대된다.

학호마을 축사단지에는 왕궁정착농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비한센인 마을로, 밀집된 재래식 축사에서 24농가가 폐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호남고속도로변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축사매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이에 시와 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 유역 제3단계(2021년 ~ 2030년) 수질개선 대책'에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근거를 마련 사업 시작 1년만에 24농가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축사매입사업은 당초 3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김관영 진북지사가 축사매입사업을 2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총사업비 170억 원 중

51억 원(30%)의 예산을 전격 지원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학호마을은 대규모 축산농가가 많고 적법화된 축사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현실과 보상요구와 축사 매도 후 생계 대책 문제를 놓고 시와 견해 차이가 있어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세 차례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축사매입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축사매도자 가족분노 처리수술로 간편 혜택 부여 등 개별농가 면담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갔다.

/*익산=이재춘 기자

수해 농민 목소리 경청... "문 활짝 열어둘 것"

정현을 익산시장, 농민 아픔 적극 공감 ·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소통창구 정상화 약속

정현을 익산시장이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일 북부청사 3층 강당에서 '수해 농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농민 아픔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한다"며 "소통창구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재 익산시농민회장을 비롯한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 망성·용안·용동면 일대 수해 농민 등 13명이 참석했다.

익산시는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피해 농가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정 시장은 "수해 발생 이후 한 달 반이 흘렀는데도 담당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게 없다보니 인내에도 한계가 오



고 마음이 다급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해 복구 과정에서부터 현재 보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행정이 공감을 통해 간극을 줄이고 주민 고통이 하루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신속한 보상 지급 △배수펌프장·농수로 보강 △농가 폐기물 처리 지원 △현장지원금 수령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MZ세대 아이디어... '청렴마중물 역할'로

정현을 익산시장이 MZ세대의 조직문화 아이디어를 공직사회 청렴가치 확산에 마중물 역할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지난 1일 지역 카페에서 16명의 20~30대 공직자들이 함께한 '세대 공감 청렴 토크(talk talk)'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은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 이상적인 상사 유형 ·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 청렴 관련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시장은 20~30대 공무원의 눈높이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평소 생각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청렴한 공직 문화는 전 직원의 수평적 소통 및 청렴 공감대 형성이 기반"이고 "신규 공

직자들이 내놓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청렴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MZ세대의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가치관적인 MZ세대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자 청렴 으뜸 도시 익산을 구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거리에서 즐기는 맥주 축제'

익산 영등상권에서 8-9일 얼맥 페스티벌 개최

익산 영등상권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맥주축제가 여름 끝자락을 짙은 열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3 다대영등 얼맥 페스티벌'이 고봉로 32길 일원(영등2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과 롯데마트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하이트진로와 협업을 통해 신선하고 시원한 맥주가 준비될 예정이며 영등 상권 일대 매장 음식을 거리에서 가성비 높게 즐길 수 있다.

인기가수 홍진영의 특별무대와 모창 가수인 싸이버거, EDM 댄스파티 등 흥겨운 공연으로 얼맥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며, 맥주 빨리 마시기 방문객 장기자랑 및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행사장 내 버스에서 다료음 카드 이용 시 다료음 10% 추가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용선 영등상권 상인회장은 "영등상권의 특색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얼



맥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축제 기간 중 많은 분들이 상권을 즐기고 영등상권민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얼맥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 및 인근 도시에서 영등 상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후에도 상권내 지속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3, 군산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군산시는 '2023. 군산 희망복지 박람회'를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희망복지박람회는 '다시 군산! 복지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민관이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박람회 슬로건을 공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복지사책 홍보, 또한 장애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지역복지, 복지가동 상담 등 유형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50여 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56개의 기관 홍보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 전시관 열린무대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우리 회사 워라벨 자랑하기' 공모전

군산시는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친화제도 자랑 및 에피소드 공유를 통해 워라벨 문화를 군산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우리 회사 워라벨 자랑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군산시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인 시민10여명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3점 이내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시청 행정지원과로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basark0516@koreakr) 제출 또는 네이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응모 내용은 우리 회사만의 특색 있는 우수 사내 제도 자랑과 그를 통해 변화된 개인의 체험 후기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회사 워라벨 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양정형외과, 비로정형외과를 '생명사랑병원'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생명사랑 병원 지정 · 협약 체결

군산시보건소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일 생명사랑 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2곳(한양정형외과, 비로정형외과)을 '생명사랑병원'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우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집중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병원을 생명사랑 병원으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료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생

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 정신과적 치료 연계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명사랑 병원 지정으로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치료해 자살률을 낮추고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문제와 우울증 등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445-9191)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